

文脈 接續에 의한 文章分析과 그 實際

김 광 응

(인문대 국어국문학과)

[I]

文章은 文段을 構造單位로 문단은 文을 구조 단위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문장의 分析에서 文과 文의 連接構造, 문단과 문단의 連接構造를 이해하는 일은 문장의 내용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文을 주대상으로 하는 문법에서의 統辭論의 연구는 상당히 활발히 진전되고 있으나 문장을 대상으로 하여 문단과 문단의 연접 구조, 文과 文과의 관계를 목적으로 하는 文章論의 연구¹⁾는 미진한 상태에 있다. 문장의 구조면에서 볼 때 前後文과 文段이 어떻게 接續되며 前後의 意味 比重 關係를 어떻게 견지하며 文脈의 起伏를 어떻게 이루는가의 理解는 文章의 分析과 文脈 파악에 필수적 要件이 된다고 할 것이다. 특히 文과 文, 文段과 文段의 접속 관계에서 접속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어휘를 파악한다는 것은 文脈 파악의 지름길이며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문맥 파악에 있어서 접속에 관계된 어휘 파악을 도외시한다면 문장의 구조는 해결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만약 文脈 接續에 관계된 어휘가 생략되어 있다면 그 내용을 머리 속에 보충하여 상정함으로써 문장의 접속 관계를 구별해야 할 것이다. 모든 文章의 구조를 구별한다는 것은 결국 文脈(context)의 구조를 究明한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야의 연구는 아직 미진한 狀態로 있음은 사실이

1) 時校誠記, 『日本文法 口語篇』, pp.20~25. 국어 교육에서 구체적인 문장을 다루는 이상 문장 그 자체를 하나의 단위로써 論하는 文章論이 앞으로 가장 중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학자가 많다.

다. 더욱 훌륭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近來 文章論 研究에서 발전된 類型을 바탕으로 실천적 경험에 의하여 그 기본적인 연결구조를 살피고 문장 분석의 실제에 적용하려 한다.²⁾

[II]

2.1 接續의 類型

(1) 順接 關係

: 원인·결과, 이유·귀결(歸結), 상술(부연 = 상세화 = 재서(再敍), 시간적 공간적 서술, 사건의 순차적 서술의 관계를 나타내는 문맥 관계이다.

- ① 철쭉 같은 밤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전진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이유)
- ② 가스통이 새었다. 그래서, 온 실내가 불바다로 되었다. (원인)
- ③ 와락 울음을 터뜨렸다. 오랜 설움이 복받힌 것이다. (이유)
- ④ 살인범도 물에 빠진 아이는 건져 준다. 사람은 누구나 측은해하는 마음을 지녔기 때문이다. (이유)

(2) 逆接 關係

: 文이나 단락의 내용이 대립되어 접속되는 경우, 즉 뒤의 글이 앞 글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대의 의미 내용을 갖고 접속되는 관계이다. 그러므로 뒤집어 접속하면 전면 부정, 부분 부정의 문맥이 된다.

2) 倉澤榮吉, 渡部壽賀雄, 『文章論의 讀解指導』에서 文 및 文段의 連接構造를 다음과 같이 分類하고 있다.

(A) 承接- ① 順接 ② 逆接 ③ 歸結 ④ 事態 또는 作用에서의 結果 ⑤ 添加
⑥ 選擇 ⑦ 對比 ⑧ 保留 ⑨ 限定 ⑩ 應答

(B) 再敍- ① 換言 ② 詳述 ③ 要約 ④ 反復

(C) 轉換

(D) 補充- ① 解說 ② 例示 ③ 證明

(E) 前提- ① 提示 ② 例示

또한 順接, 逆接, 累加, 再敍, 同格, 補足, 對比 및 轉換으로 分類하는 類型이 보편성을 띠고 있다.

- ① 수해가 컸다. 그러나, 농작물에는 큰 피해가 없었다.
- ② 바람은 없다. 그렇지만, 날씨는 조금도 풀린 것 같지 않다.
- ③ 그 친구는 마음이 좁다. 그렇더라도, 그를 버리지 말고 바르게 이끌어야겠다.

(3) 對等·병접(並接) 關係

: 전·후문의 반복, 대비에 의한 접속, 즉 소재, 제재, 주제의 차이가 현저하여 대립의 특성이 서로 강하게 나타나는 문맥 관계이다.

- ① 학교 및 교회가 다 쫓기하였다.
- ② 고대 소설은 추상적인 설명, 공식적인 文章에 흘렀다. 또, 과장법을 써서 독자의 환심을 사고 주인공을 영웅화, 위인화하였다.
- ③ 과학은 경험을 토대로 연구한다. 과학은 사물의 원인과 법칙을 탐구한다.

(4) 補充·添加 關係

: 앞 글의 내용을 강조, 보충한 것을 덧붙여 주제를 강조하는 접속관계이다. 이 때에 덧붙이는 내용의 소재, 제재, 주제는 다름이 일반적이다.

- ① 그는 합격했다. 게다가, 동생까지 합격했다.
- ② 그는 만날 때마다 목례를 했다. 뿐만 아니라, 미소까지 지었다.
- ③ 대통령은 중임할 수 없다. 단, 초대 대통령의 경우는 예외이다.
- ④ 현대 서적만으로는 옛날을 알기 어렵다. 옛날, 옛 사람에게 직접 접촉할 수 있는 것은 고전이다.

(5) 話題 轉換 關係

: 앞 글과 다른 새로운 생각이나 사실을 서술하여 화제를 일전시키는 접속 관계이다. 그러므로 앞 글과 뒤의 글의 내용이 그 방향을 달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① 그는 내일 귀국한다. 그런데, 너는 그를 만나러 갈 셈이나?
- ② 그는 합격했지. 그런데 자네는 어떻게 됐나?

(6) 選擇 關係

: 앞 文이나 뒷 文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경우를 나타낸 관계.

① 그는 웃고 있었다. 또는, 춤을 추기도 했다.

(7) 比喻·例示 關係

: 앞 文이나 文段에 대한 실례, 비유를 나타내는 관계. (순접 관계로도 볼 수 있다.)

① 그는 훌륭한 점이 많다. 예컨대 아무리 모욕당해도 성내지 않는 것이 그것이다.

② 은희는 마음이 정결하다. 마치 갓 핀 백합과도 같다.

(8) 提示 關係

: 뒷 文이나 文段을 이끌기 위해 앞에서 독립적으로 나타나는 문맥. 이 관계의 예는 전환의 例文에서 설명하겠다. (=도입 관계)

2.2 連接 構造에 의한 接續副詞의 分類

앞에서 분류한 연결(連接)구조 유형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① 순접(인과) : 그래서, 그러기에, 그러니, 그러므로, 따라서, 그러매, 그러니까, 하니까, 그런고로

② 역접 : 그러나,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그러되, 하지마는, 하나

③ 대등 병렬 : 및, 또는, 혹은, 또한, 이에 반하여, 또, 그뿐 아니라

④ 첨가 보충 : 단, 더욱, 그 위에, 게다가, 뿐만 아니라, 더구나

⑤ 전환 :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 그렇다면

⑥ 재서(再敍) : 즉, 그런즉, 말하자면, 요컨대, 이를테면

⑦ 선택 : 또는, 혹은

⑧ 비유 예시 : 예컨대, 이를테면, 말하자면, 가령

여기서 주의할 것은 위에서 분류한 접속사를 기계적으로 순접, 역접 등으로 보아서 안된다. 문맥에 따라 그 기능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접속사가 文 상호간, 文段 상호간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가를 문맥 내에서 고찰하여야 한다. 물론 위에서 분류한 기능이 1차적인 기능을 갖고 있지만 어떤 접속사는 2차적, 3차적 직능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 첨가적 용법 : 묘사적 형상이 어떤 사물을 그리려는 표현이라고 한다면, 정서적 형상은 어떤 사물에서 얻은 정서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묘사적 형상이 보다 객관적이라 한다면 정서적 형상을 보다 주관적이라 할 수밖에 없다. (이 글의 초점은 묘사적, 정서적 형상의 概念 설명에 있는 문맥의 글이다.)

㉡ 예시적 용법 : 평화로운 시대에 시인은 문화의 장식자이다. 그러나 국가가 비운에 처했을 때 시인은 예언자로 민족혼을 불러일으키는 선구자적 지위에 놓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산된 이탈리아인에게 단태는 유일한 이탈리아로 숭모(崇慕)되었으며 1차 대전 시 독일 압제 하에서 벨기에인에게 시인 베르하렌은 조국의 신령으로 추앙(推仰)되었다. (이 글의 초점은 시인의 사명에 있는 글이다.)

㉢ 인과적 용법 : 게으른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 그러므로, 너는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 대등의 용법 : 아래아〈·〉는 첫 음절에서 〈아〉로 변한다. 그러나, 둘째 음절에선 대부분 〈으〉로 변한다. (이 글은 〈·〉의 용법을 설명한 글임.)

㉡ 첨가적 용법 : 사과를 먹어라. 그러나, 하나만 먹어라. (이 글은 앞 부분에 중점이 놓인 글이다.)

㉢ 역접의 용법 : 태풍이 불었다. 그러나, 이 마을엔 피해가 없었다.

특히 문맥에서 文과 文과의 관계를 분석할 때 이같은 접속사들이 어떤 용법으로 직능하고 있는가를 살피면서 글을 분석해야 할 것이다.

2.3 文段과 文章 分析의 實際

- ① 고독하고 내성적인 간디는 친구를 사귄 줄 몰랐고, 여자처럼 사람들 앞에서 수줍어할 만큼 나약했습니다. □. 학교 공부가 끝나는 대로 벼들을 피하여 집으로 달려 갔습니다.
- ②. 난 고아 아닌 고아가 되었네. □. 그날그날을 아무렇게나 살자는 것이었지.

①~② 의 예문은 이유-귀결의 문맥이므로 □에는 순접의 접속부사가 있어야 함을 알 수 있다.

- ① 소년 시절의 과도한 독서는 밀턴으로 하여금 만년에 실명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 그러한 근면의 덕택으로, 그는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문학을 비롯하여, 철학, 천문학, 물리학 등의 학문에 상당히 깊게 들어가 있었다.
- ② 소설을 그 분량으로 보아서 길고 짧은 것만 가지고 표준을 삼는다면, 단편 소설의 기본 형태는 14세기 이탈리아의 복카치오가 쓴 데카메론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 정말 근대 소설의 형태와 체재 아래, 고도의 예술적 의욕을 가지고 만들어진 단편 소설은, 19세기에 들어와서부터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 ③ 이제 나팔은 또다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하기는 하지만 무기를 들라는 나팔이 아니요, 우리가 현재 전투 상태에 있기는 하나 전투를 하라는 나팔도 아닙니다.

①~③의 □는 역접관계의 접속사가 와야 한다. ① 文이 순접이라면 <~원인이 되었다. 그래서 실패했다>라고 연결되어야 하겠다.

- ① 논설 위원실에서는 그날 그날의 평론을 담당하여 사실과 단평들을 써낸다. □. 편집부에서는 신문 내용을 풍부하게 꾸미려고 온갖 지혜를 다 짜낸다.

- ② 이같이 3·1운동이야말로 민족 정기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 긴 흐름이 잠시도 끊어지지 않아야 하며, □ 민족 수련의 용광로이기 때문에, 그 타오르는 불길이 조금도 꺼지지 않아야 한다.
- ③ 고요한 밤에는 누구든지 달을 좋아하며 노래하고 찬양하게 된다. □, 수놓은 듯한 조그만 별들은 하나하나가 모두 신비롭게만 보인다.
- ④ 「만세전」은 3·1운동이 일어나기 전의 한국의 사회상을 그린 소설로서 중요한 작품이다. □, 「취우」는 6·25사변을 전후한 우리나라의 사회상을 그렸다는 점에 그 특색이 있다.

①~④는 대등한 관계다. ①은 <논설위원실>과 <편집> ③은 <달>과 <별> ④는 <만세전>과 <취우>의 경우가 병렬적이다. 그러므로 □에는 병렬의 접속사가 필요할 것이다.

- ① 남이 말하는 것을 채 새기지도 못하고 그대로 옮겨 쓰다가 엉뚱한 기사가 되는 수가 많다. □, 정확하고 진실한 것은 뉴스의 생명이므로, 듣기조차도 잘못하여 엉뚱한 기사를 써서는 안 될 것이다.
- ② 한글은 확실히 세계의 글자 발달사상 보기 드문 것이다. □, 세종대왕의 독창력으로써 완성된 한글은 그 놀랄 만한 문화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 ③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정씨의 주는 워낙 군소리요, 공자의 당초 소박한 표현이 그대로 고마운 말이 아닐 수 없다. □, 현세와 같은 명리(名利)와 허화(虛華)의 와중(渦中)을 될 수 있는 한 초탈(超脫)하여, 하루에 단 몇 시 몇 분이라도 오로지 진리와 구도(求道)에 고요히 침잠(沈潛)하는 여유를 가질 수 있음이 부생 백년(浮生 百年), 더구나 현대인에게 얼마나 행복된 일인가?
- ④ 밀턴은 첫번 결혼에 실패했고, 둘째 번 부인은 사망했고, □ 그 자신은 완전히 시력을 잃어 맹인이 되었다.

①~③의 중심문은 첫문장으로 간주하고 글을 보기 바란다. 앞뒤를 생략한 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첫 文이 主題文이라면 뒷 文은 앞 文의 내용을 강조하기 위하여 보충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①은 雪上加霜 ②는 錦上添花 ③은 ‘심지어’의 경우다. 그러므로 첨가 보충의 접속부사인 더욱이, 더구나, 더군다나, 게다가 등이 쓰일 수 있다. ④는 점층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불행을 강조하

고 있다.

- ① 연극은 문학, 음악, 미술, 조각, 건축 등 여러 부문의 단일 예술의 요소를 모두 포함한 종합 예술이다.
□. 연극의 본질은 무엇이며 특징은 무엇일까?
연극은 행동의 예술이다.
- ② 한편에서는 화폐를 판매자에게 주고, 판매자는 이 화폐를 목표로 화를 줌으로써 서로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오늘날의 현상이다. □. 이것을 국민경제 전체의 처지에서 본다면, 한편 교환을 통하여 욕망을 충족시키는 사람들 사이에서, 계획적으로 또는 맹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교환 생활의 총체로 국민경제를 파악할 수 있다.
- ③ 장구 소리가 가늘게 또 길게 끄는 것도 일종의 선의 예술일시 분명하다. □. 반달은 아직 충만하지 않은 데 여백이 있고, 장구 소리에는 여운이 있다.
- ④ 시가 내면세계의 표현을 목적으로 하면 이미지와 이미지는 비약적으로 관련되어 나타나고 외면의 모상으로 되지는 않는다.
□. 이미지란 말이 나왔지만, 특히 현대시에 있어서 이미지론을 크게 내세우게 된 것은 1914년 무렵부터 이미지스트라고 불린 영국의 현대시 운동에서부터였다.

①~④를 자세히 보면, □ 앞 글과 뒤의 글의 내용이 그 方向을 조금씩 달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이 '화제 전환'이다. 즉 ①은 연극의 본질 ②는 국민경제 ③은 여백과 여운에 ④는 이미지 운동의 기원에 주안점을 두어 앞 文과 다른 사실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므로 □에는 전환에 해당된 접속사가 들어가야 한다. 앞 文은 뒷 文을 이끌기 위해 제시의 관계라 보아 도입관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①은 '그러면', '그렇다면', ②는 '그런데' ③도 '그런데' ④는 '여기', '여기서'가 알맞겠다.

- ① 그것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사실적 단계다. □. 어떤 사람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사람이라는 말에 형용사를 붙여, 큰 사람 또는 작은 사람 따위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 ② 우리가 고대 소설을 읽어 나갈 때 첫째로 느끼는 것은 문체가 노래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 현대 소설이 언문일치의 文章으로 된 산문 형식인데 비하여, 고대 소설은 산문이라기보다는 운문이라고 하

는 것이 좋을 만큼 4·4조로 된 가사체가 대부분이다.

①과 ②文의 뒷 文은 앞 文을 부연, 상술하는 관계이다. 즉, 요약적으로 제시된 앞 부분을 더 알기 쉽게 풀어 적고 있다. 그러므로 □에는 재서(再敍)의 접속사가 와야한다.

① 인간은 지극히 약소한 모순적 존재다. ② 인간은 정욕(情欲)의 종이요, 허위의 탈을 쓰고 야심과 권력의 손아귀에 지배되는 비참한 존재다. ③ 인간은 위대와 비참, 빛과 어둠, 천사적인 것과 동물적인 것의 모순적 양극을 스스로의 본성 속에 지니는 존재다. ④ 그러므로 파스칼은 말하기를 「인간에게 그 위대한 면만을 지적하고, 비참한 면을 제시하지 않는 것도 위험한 일이요, 또 동물적인 차원만 강조하고 위대한 빛의 질서를 말하지 않는 것도 위험한 일이다. 인간은 자기를 동물과 같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또 천사와 같다고 생각해서도 안된다.」고 한다.

이 글은 인간의 양면적 특성을 주장한 글이다. 그러므로 ①文이 중심문이다. ②文과 ③文은 ①文을 부연 상술하고 있으며 ②文과 ③文은 대등 병렬의 관계로 연결되었다. ④文에서는 파스칼의 말을 예시 관계로 인용하여 ①文의 명제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주의할 점은 〈그러므로〉의 용법이다. 이 접속부사는 대개 인과의 순접 문맥에 나타나는 것이나 여기서는 예시의 기능을 하고 있다. ①文이 중심문일 수 있는 것은 ②文과 ③文이 ①文의 근거가 되어 부연 상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글의 주제는 “인간은 모순적 존재다.”라고 할 것이다. 두괄식 구성법이다.

- ① 인간의식이 일어나기 이전의 이 삼라만상은 캄캄한 카오스 속에 잠겨 있다.
- ② 산도 물도 하늘도 대지조차도 제 모습을 전혀 드러내지 못한 채 어둠 속에 묻혀 있다.
- ③ 그러나 어느 한 순간 사물은 인간의 의식 속에 그 모습을 드러낸 사물들에 대해 우리는 [san] [mul] 같은 명명(命名)을 하게 된다.
- ④ 이 命名에 의해서 동물은 비로소 존재하게 된다.
- ⑤ 그러니까 이런 존재의 命名을 최고의 척도에서 수행하는 詩는 이미 알려진 명칭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을 命名하는 것이다.
- ⑥ 가령, 모나리자의 미소를 두고 시인이,

저녁 냄새가 번지는 미소.
 그쪽으로 가까이 가면서
 나는 우연히 커다란
 모나리자의 손을 느낀다.
 두껍고 따뜻하다.

-高遠 : 모나리자의 손

고 했다면, 이것은 알려져 있는 사실의 命名이 아니라 본질의 命名이다. ⑦수천 수억의 시가 동일한 대상을 놓고 썬어질 수 있는 것도 이미 알려진 것이 아닌 본질의 새로운 命名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 글에는 여러 개의 부사가 쓰였으나 ⑥의 '가령'과 ③의 '그러나'가 이 글의 일관성, 곧 맥락을 드잡는 열쇠다.

첫째, '가령'은 文章 ①~⑤와 ⑥~⑦이 각각 이루는 두 개의 단락을 연결하고 있다.

둘째, '그러나'는 '사물에 대한 인간의식의 작용'이 제약조건이 되어, '그러나' 앞과 뒤의 내용이 상호대립 概念으로서 피제약적 존재의 자리에 놓이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러나' 뒤에 화제의 중심이 있다. '가령' 이하는 예증으로서 보충단락(보충명제)이다.

文章 ①~②를 제1형식단락, '그러나' 이하 ③~⑦을 하나의 단락으로 묶을 수도 있으나, ①~②와 ③~⑤의 내용상의 긴밀성 때문에 단락 구분을 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이 같은 접속어, 상관구가 가리키는 내용이 어느 범위까지 소급하느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① 마리탱의 철학적 성과는 인생의 뜻에 대한 그의 정열적인 탐구와 철학, 신학과 정신적 체험에 대한 꾸준한 예지(叡智)의 추구에서 얻은 것이며, 그것이 가능하다는 확신에서 얻어진 것이다. ② 그리고 다른 현대 철학자들, 예컨대 가브리엘 마르셀이 추상적인 사고방식을 한탄하고, 또 하이데거가 존재망각적인 현대인의 일상생활을 꾸지람하듯이, 마리탱도 현대인들이 점차로 사랑과 진리와 존재에 대한 감각을 상실해 가고 있음을 비통하게 생각한다. ③ 그리고 현대인은 무엇보다 지성을 회복해야 하고, 영성(靈性)과 성성(聖性)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④ 현대 사상은 이러한 모든 인간성을 근본적으로 파괴했

다고 보는 것이다. ⑤ 다시 말하면, 神 중심적인 세계관에서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으로 전환한 이후로 인간들은 신안만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 그와 동시에 인간성까지도 상실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⑥ 이러한 마리땡의 주장은 이미 반세기가 넘도록 오래된 주장이기 때문에 이미 학자들 사이에서 상식처럼 되어 있다.

이 글에서 ②의 '그리고'는 물론 ①과 ②를 연결한다. ③의 '그리고'가 ①~②와 ③을 연결하느냐, 아니면 ②와 ③을 접속하느냐가 문제다. ①은 마리땡의 사상적 공로에 대한 일반적 진술이고, ②와 ③은 그 상세화 곧 구체적 진술로서 동질적인 것이다. ②와 ③은 공통 주어를 '마리땡도'로 하고, '비통하게 생각한다',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를 각각 서술어로 하여 이루어진 글이다. ④는 ①의 일반적 진술을 더 구체화한 일반적 진술이다. ⑤는 ④의 상세화로 보충 명제에 해당한다. ⑥은 ②~⑤의 내용에 대하여 첨가에 의한 보충의 구실을 한다.

감탄사는 지시표출의 강도가 미약하기 때문에 의미에 관해서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한다. 고작해야 '놀람이나 기쁨·슬픔 등의 감탄을 나타내는 말'이라는 정도로 인식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일단 시어(詩語)로 사용된 감탄사는 문맥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게 된다. 바꾸어 말해서, 고도의 경제성이 요구되는 시에 쓰인 감탄사는 가능한 한 최대한의 의미를 내포하게 된다. 어떤 면에서는 명료한 지시성을 갖는 명사보다도 훨씬 의미의 밀도가 강하다.

이 글의 화제는 '감탄사의 표출도'로서 통일성을 이루고, 시어인 '감탄사의 강한 의미의 밀도'를 일관성 있도록 강조하여 전개하게 되어 있다.

제 2형식 단락의 첫 낱말 '그러나'는 그 앞의 제 1형식 단락 전부를 뒤집어 그 다음 제 2형식 단락을 역접 문맥이 되게 한다. 즉, '그러나' 앞 글은 "감탄사는 지시 표출의 강도가 약하다."는 것을 그 화제로 하고, 그 아래 글은 "시어로 쓰인 감탄사는 명료한 지시성을 띤 명사보다 훨씬 강한 밀도의 의미를 얻는다."가 그 화제인 것이다.

여기서 '그러나'가 제 2형식 단락의 첫 낱말로 쓰인 이유가 밝혀진 셈이다.

(A) 畸形的으로 발달한 感覺의 銳敏을 자랑도 하고, 과학의 萬能을 謳歌하기도 하였던 유럽인도, 그들이 믿었던 철학이나 과학만으로는 우주의 本質이나 人生의 궁극적 본질을 규명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한 후에 닥쳐오는 空虛感, 그렇다고 종교만을 지침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기에는 이미 肥大하여진 그들의 理性이 허락하지 않게 된 유럽 세계는 동양의 植民地를 토대로 外觀上으로는 豪奢한 生活을 營爲할 수 있었으나, 마음의 不安과 焦燥感을 숨길 수 없었다. (B) 절망과 世紀末的인 퇴폐의 세계에서 허덕이던 碧眼의 西洋人이 屈從과 不辛 가운데에서도 태연한 沈着과, 때로는 자신의 표정조차 엿보이는 東洋人을 發見하였을 때 어떻게 반영되었을까. 물론, 무력과 우둔과 無神經의 소치로 조소할 수도 있다. 그러나 비록 西洋類의 惡質한 認識論을 토대로는 하지 않았으나 때로는 叡智의 閃光조차 풍기는 심오한 人生觀과 信念을 가지고 생활하는 東洋人을 嘲笑만 할 수 있겠는가. (C) 자연의 征服이 곧 행복의 關鍵인 줄만 알던 西洋人과 달리 自然과 일체가 되어 자연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東洋人, 富의 蓄積이 인간의 가치를 측정하는 尺度로 되다시피 한 서양 문명과는 달리 人格의 원만과 학식이 존중되는 東洋社會, 그리고 西洋의 권리와 의무 위주인 對人關係에 比하여 謙讓의 德과 人情의 美가 高調되는 東洋의 社會는 확실히 西洋과는 對照的인 존재임이 틀림없다.

(이용범 「동양과 서양」에서)

이 글은 세 개의 形成 段落으로 構成되어 있다. (A) 단락은 한 문장으로서, 그 주제를 요약하면 '유럽 세계는 철학이나 과학만으로는 人生의 궁극적 本質을 究明할 수 없다는 것을 發見한 후 닥쳐오는 空虛感으로 마음의 不安과 焦燥感을 숨길 수 없었다'이다.

(B) 단락의 분석에서 보면 접속부사 '그러나'는 큰 시사점을 준다. 즉, 앞의 내용과는 의견이 달라져 있음을 본다. 그러므로 '그러나' 이후의 문장 '서양인은 심오한 人生觀과 信念을 가지고 있는 동양인을 조소할 수 없었다'에 그 主題가 요약되어 있다. (C) 단락에서는 西洋社會와 東洋社會를 對照시켜 동양의 優位性을 강조하여 (B) 단락의 근거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 글의 주제는 (B) 단락의 '그러나' 이후에 있으며 西洋과 대조해 본 東洋의 優位性을 강조한 글이다.

단순히 물질적인 것 또는 육체적인 것만으로 滿足하지 못하는 마음은 이른바 理想을 追求하는 마음이기도 하다. 진실로 永遠한 것, 또는 진실로 絶對的인 것은 끝내 人間에게 주어질 수 없는 꿈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단순히 물질적인 것, 혹은 단순히 육체적인 것들이 갖는 그것보다는 좀더 永久한 生命을 지닌 價値를 實現함이 불가능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人間은 現在 극복돼야 할 무엇이라고 믿는 까닭에 보다 나은 삶에 대한 동경을 斷念할 수가 없다. 理想의 세계를 어떠한 方向으로 구하는가는 각 개인의 性格과 環境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결정될 문제다. 超自然的인 絶對者의 힘을 빌어 永遠한 것을 잡으려 할 때 宗教的인 理想이 追求될 것이며, 스스로의 人間的인 努力을 통하여 보다 아름다운 地上的 나라를 建設하고자 피할 때 道德的인 理想이 追求될 것이다. 또한 아름다움을, 現實의 世界 안에 現實의 改造를 통하여 創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假想의 世界안에 그것을 創造할 것을 피할 때 藝術的인 理想이 追求될 것이다. 그리고, 그 理想의 實現을 위한 努力의 焦點이 되는 것은, 또는 그 理想 實現의 前提條件으로서 要請되는 것은, 스스로의 人格의 向上이다. 超越者에 의지하여 救濟의 길을 얻으려 피할 경우에 現實的인 努力의 對象이 되는 것은 나 자신의 人格을 向上시키는 일이다. 絶對者 또는 超越者에 의지하여 救濟를 받으려면, 우선 나 자신이 그 救濟를 받을만한 資格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 資格을 갖추자면, 내가 그의 뜻을 어김없이 받들거나 또는 그의 德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야 할 것이다. 모든 宗教가 道德的 敎訓을 包含함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藝術을 통하여 짧은 人生에 긴 生命을 담아 주고자 피할 경우에도, 내 人格의 向上이 결국은 저 藝術의 理想의 實現을 위한 바탕이 될 것이다. 藝術에 있어서 大成하기 위해서는 비상한 努力이 요구된다는 점으로도 그렇거니와, 藝術品에 나타나는 아름다움이란 결국 人間精神 속에 조성된 아름다움의 表現이라는 점으로 볼 때 더욱 그렇다. 보다 나은 地上的 나라를 建設하고자 하는 道德的 理想의 경우에 있어서 自我의 向上이 기본이 된다는 것은 더욱 뚜렷하다. 道德的 理想이란 나 자신의 人格을 높이려고 하는 포부와 자기가 관계하는 國家나 社會를 보다 살기 좋은 고장으로 建設하고자 하는 情熱의 總稱이다. 나 개인의 人格의 문제보다도 國家나 社會 전체의 福祉 문제에 관심의 焦點을 둘 경우에도, 그 社會的 理想을 實現하는 것은 결국 여러 개인들의 人

間的인 力量이나, 理想을 품은 이의 人格의 向上이 그 理想 實現의 前提 조건으로서 要請되지 않을 수 없다.

이 글은 세 개의 意味段落으로 되어있다. 첫째 단락의 '그러나'에 의해 첫째 단락의 主題文이 '그러나' 이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그 주제는 '인간에게 內在된 理想追求의 마음'이다.

둘째 단락은 演역적 구성법으로 첫 文章이 主題文이고 그 뒤 文章들은 첫 文章의 詳細化임을 알 수 있다. 셋째 단락의 구성도 둘째 단락의 구성과 同一하게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첫 文章이 中心內容이며 그 이후의 글들은 그 中心內容을 詳細化하면서 說明하고 있다. 둘째 단락과 셋째 단락 사이의 '그리고'는 이 글의 주제 결정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즉, 둘째와 셋째 단락의 '그리고'에 의해 그 두 단락은 대등하거나 내용의 순차적 서술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글의 전체 주제는 '理想世界의 方向 決定과 現實 實現의 前提條件'이 될 것이다. 이 글의 구성을 살펴보면 첫째 단락은 序論의 性格을 가지고 둘째, 셋째 단락은 本論으로 二段階 構成임을 알 수 있다.

學問은 人間의 알고 싶어하는 本性에서 솟아나오는 知識愛요, 또 그 결과이다. 그러면 知識과 認識은 어떤 것인가? 눈을 들어 내 앞에 있는 것을 보면 곧 知識이요, 認識이라 할까? 감각으로 들어온 모든 것을 知識이라 한다면 學問이 별로 귀여울 것도 없다. 누구나 다 정상적 감각 기관을 가졌으면 이만한 知識은 쉽게 얻을 수 있다. 그러나 感覺的 知識은 아직 知識이 아니다. 감각이 知識의 중요한 원천이기는 하나, 이는 무엇에 대하여든지 그것이 어떤 理由로 그러한지를 말하지 않는다. 감각은 "불이 뜨겁다"하는 사실을 고하여 주되, 불이 왜 뜨거운지는 우리에게 說明하지 않는다. 감각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經驗도 우리에게 이 사실이 이러 이러함을 보여 줄 뿐이요, 그 事物의 그러한 理由를 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知識은 事物을 있는 그대로 봄으로써만 成立되는 것이 아니라, 그 理由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觀察로 얻어진 사실의 원인을 探究하는 것이 學問이다.

(鄭銀海 학문과 진리)

이 글은 몇 개의 접속부사가 있어서 우리에게 좋은 안내자의 역

할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論題의 方向을 '학문'에서 知性으로 바꾸어 問題를 提起하고 있다. 그 다음에 있는 '그러나'의 文章은 앞 文章과 그 내용이 反對임을 나타내어 '感覺的 知識은 아직 知識이 아니다'임을 드러내고 있다. 또 '그러므로'의 文章은 둘째 文章에서 提示한 '知識'의 개념을 因果的으로 단정하여 '그러면'에서 시작된 問題 提起의 結論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은 知識을 정의하기 위한 글이 아님을 '다시 말하면'에서 보여주고 있다. 즉 이 글의 題材는 知識이 아니고 학문임을 알 수 있다. 그런 까닭에 이 글의 主題文은 첫 문장과 끝 문장에 요약적으로 提示되어 '觀察로 얻어진 사실의 原因을 探究하는 것이 學問'임을 주장한 兩括式 文章의 글이다.

環境은 사람을 만든다. 孟母의 三遷之敎가 바로 여기에 근거를 둔 말이다. 그러나, 그 社會의 향상 발전은 실로 이러한 消極的인 環境 적용에서 벗어나 그 社會 環境을 보다 좋게 美化 改善하는 積極적인 共同努力 없이는 이룩되기 어렵다. 나는 이러한 우리의 共同努力의 一端으로서 言語環境의 美化를 主張하고자 한다. 言語는 그 사람의 사람됨을 표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바로 그 사람이라고 까지 力說한 이가 있다. 그렇다면, 한 社會의 言語環境은 그 社會의 表現이요, 마음이라 하겠다. 그 社會의 모든 사람들이 아름다운 마음을 그 말에 담아 나타낼 때 그 社會의 言語環境은 아름다움에 충만할 것이요, 同時에 그러한 言語環境은 그 社會의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 不知中 아름다운 마음을 불러 일으킬 것이다. 말하자면, 環境과 主體는 서로 만들고 만들어져 力動的으로 상호 작용을 하며 美化 改善의 길을 달리게 된다. 이와 같이 우리의 言語環境을 미화하는 일은 우리 스스로를 미화하는 일이요, 그 길은 곧 모든 사람의 아름다운 마음을 담은 말씨로부터 비롯한다고 하겠다.

이 글은 '서론-본론-결론'으로 구성된 글이다. 서론에서 論旨가 提示되어 있다. '서론'에서 '그러나'는 앞 文章과의 反對 意味로써 뒷 文章의 근거가 되어 서론의 主題 表現에 좋은 안내자가 된다. 본론에서는 언어 환경의 미화가 인간을 만드는 論據를 제시함으로써 論旨를 해명하고 있다. 이 때 '그렇다면'과 '말하자면'은 本論 分析에 좋은 근거가 된다. '그렇다면'은 앞 내용과 反對의 概念을 展

開시키고, '말하자면' 本論의 내용을 要約적으로 提示하고 있다. 結論에 나타난 '이와 같이'는 本論의 集約으로 이 글 全體의 主題 '言語環境의 美化는 아름다운 말씨로부터 비롯된다.'를 압축적으로 表現하고 있다.

오늘날의 사람도 太陽이 東에서 西로 가는 것을 보나 그 이유를 古人과는 달리 說明한다. 지구가 自轉하는 원인으로 因하여 그 현상이 생긴다고 한다. 우리는 感覺 與件을 理性에 의하여 해석함으로써 事物을 이해한다. 人間 知識의 첫 段階는 感覺的 여건을 神話的으로 해석함이었으나, 學問이 점점 진보함에 따라 眞正한 認識은 感性에 주어진 것을 理性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바꾸어졌다. 理性으로 파악한다는 것은 概念을 通하여 事物을 이해함이다. 現代人은 學問에 대하여 論議하려면 科學에 대하여 말하지 않을 수 없다. 科學은 學問 發達의 最後 段階요, 近代 文化의 精髓이며 人間 眞理의 標本이다. 哲學的 認識論도 과학적 사실에 違反되는 생각은 眞理가 될 수 없고, 學問的으로 成立될 수도 없다. 그러면, 과학의 眞理性이 어디 있는지 더듬어 보자. 人間은 科學하기 前에 經驗的 世界에 살고 있다. 人間이 그 직접 經驗하고 觀察할 수 있는 사실이라 하는 좁은 範圍에 갇혀 있는 限에는 眞理에는 도달 할 수 없다. 科學은 日常 經驗을 擴張하고 풍부히 하여 孤立한 사실을 記述하지 않고, 包括的 展望을 주려고 努力한다. 事實 뒤에 숨은 원인과 그 事實을 지배하는 法則을 探求하는 것이다. 科學은 하나의 命題가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없는 判斷의 필연성을 우리에게 의식하게 하고, 아울러 그 命題가 판단하는 主體나 다른 사람에게도 그같이 意識되리라는 普遍性을 지니게 한다. 이 필연성과 普遍妥當性은 바로 진리의 不可缺의 條件이 되는 것이다.

이 글은 完結된 文章으로서의 構成要素 하나가 결여되어 있는 '起, 承, 轉, 結'의 글이다. 서두의 '오늘날의 사람도……'에 의해 이것이 起段이 되기 어렵고 오히려 그 앞에 있을 問題提起가 되는 起段을 받아 說明하는 承段이 되고 그 다음 段落에서 話題를 바꾸어 轉이 되고 結段에서 中心內容을 밝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글 전체에는 접속부사 하나가 있다. 이 접속부사는 글 전체의 方向을 案内하는데 중요한 몫을 하고 있다. 즉 '과학의 진리성이 어디에 있을까?'라는 問題를 提起하여 이 글의 問題를 提示하고 있

다. 그러므로 이 글의 題材는 素材인 學問이 아니라 학문을 추구하는 科學的 眞理의 條件을 밝히고 있는 論說文임을 알 수 있다.

民族的 自我發見에 대한 관심과 試圖가 싹을 보인 일은 우리 역사 상에도 몇 번 있었다. 영·정 시대의 實學派 學者에 의해, 갑오경장 前後의 文化運動 先驅者에 의해, 3·1 운동 後의 國學者에 의해서 시도되어 또 제 나름의 成果도 거둔 바 있으나, 그것은 아직도 前近代的인 儒敎的 思想의 기반을 脫却하지 못했고, 엄밀한 意味의 科學的 方法이 결여된 것도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民族 우리 思想의 연구의 자유마저 拒否되었던 異民族에 의한 迫害박의 時代에 있어서 학문이 單純한 학문으로서가 아니라, 民族意識의 固守와 양양에 結付되었던 것은 당연한 추세이기는 하였으나 오늘날 우리의 眼目으로 보아서는 소비니즘적 경향을 띠었던 것도 否認할 수 없다.

要컨대, 民族文化에 대한 主體的 자각과 矜持가 없는 새로운 創造는 不可能한 법이다. 여기서 우리는 虛張成勢의 自誇自尊이 眞實한 민족적 自我의 發見에 장해가 되며, 아니 오히려 더 害로운 것은 이러한 殘酷한 自卑自虐的 態度에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소비니즘이라 비웃는 前世代的 지성들의 觀念論 傾向에 대하여 科學的 方法이라 자처하는 一部 知性人들의 懷疑論, 決定論, 追隨主義의 경향도 마땅히 止揚되어야 한다.

이 글은 '民族的 自我發見은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라는 論旨를 해명하고 있는 글이다. 이 글에는 각 段落의 分析에 중요한 두 개의 단어 '그러나'와 '요컨대'가 나타나 있다. 첫째 단락에 있는 '그러나'는 앞 내용과의 反對 概念을 연결함으로써 '민족적 자아발견은 역사상 몇 번 있었으나 소비니즘적 경향을 띠었다.'로 그 내용을 전개시키고 있다.

'요컨대'는 둘째 단락이 結論 段落이며 그 段落의 主題文이 이 文章임을 나타내어 이 글의 主題가 '참다운 民族的 自我發見은 民族文化에 대한 主體的 自覺과 矜持에서 이룩된다'임을 確定지어주고 있다.

人間은 '생각하는 갈대'다. 人間은 思考하는 힘을 통해서 自己를 높은 尊嚴과 品位에까지 끌어 올린다. 그러나, 同時에 中間的인 인간

은 天使의 秩序에서 살기에는 많은 動物的인 要素와 次元을 지닌다. 人間은 至極히 弱小한 矛盾的 存在다. 人間은 情欲의 종이요, 虛僞의 탈을 쓰고 野心과 權力의 손아귀에 支配되는 悲慘한 存在다. 人間은 偉大와 悲慘, 빛과 어둠, 天使的인 것과 動物的인 것의 矛盾的 兩極을 스스로의 本性 속에 지니는 存在다. 그러므로 파스칼은 말하기를, 「人間에게 그 偉大한 면만을 地積하고, 悲慘한 면을 指示하지 않는 것도 위험한 일이요, 또 動物的인 次元만 強調하고 偉大한 빛의 秩序를 말하지 않는 것도 위험한 일이다. 人間은 自己를 동물과 같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또 天使와 같다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고 한다.

人間性은 人間이라는 自然을 말하는 동시에 人間을 人間답게 하는 本質을 意味한다. 前者는 人間性的 自然的 側面을 말하고, 後者는 人間의 理想的 側面을 가르킨다. 人間性은 人間이 人間다운 것을 意味한다. 그러면, 人間다운 것, 人間的인 것의 속성은 무엇인가? 人間은 事物이나 道具와 같은 存在가 아니고, 主體性인 존재다. 具體的으로 말하면, 人間은 現實의 個別的 單獨者로서 獨自的인 個性과 人格을 지닌다. 人間은 人格이기 때문에 手段이 아니고 目的 그 자체다. 人間은 무엇보다도 自由의 存在요, 自由의 바탕으로 創造의 知性에 依하여 幸福을 追求하고 사랑의 對人關係와 正義의 社會秩序를 원하고, 文化와 教養의 生을 누리면서 歷史의 建設에 참여한다. 이러한 人間의 基本的 條件으로서 衣食住의 保障이 필요함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므로, 人間性的 속성으로서 우리는 적어도 主體性, 人格, 個性, 自由, 사랑, 知, 性, 正義, 文化, 教養, 生存權, 幸福 등을 들지 않을 수 없다.

두 개의 段落으로 構成된 이 글에는 몇 개의 접속부사가 提示되어 文脈 分析에 좋은 案內者가 된다. 첫째 단락의 '그러나'는 앞 내용과 異見임을 보인다. 그래서 人間の 矛盾的 存在임을 나타내는 근거가 된다. 또 '그러므로'는 一般的 用法과는 달리 例示를 나타내고 있음을 본다.

둘째 단락에 있는 '그러면'과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이 段落 分析에 좋은 힌트를 준다. 즉 '그러면'은 論題를 바꿔 問題를 提起하고 있으며 그 해답이 그 다음 文章으로 이 글 전체의 주제가 된다. 즉 '人間은 事物이나 道具와 같은 存在가 아니고 主體的 存在다'이다. 그 다음에 나타난 '具體的으로 말하면' 以下の 글은 앞 主題文을 具體化하여 부연하는 글이며 '그러므로'는 '具體的으로 말하면'에서 시작된 내용의 결론으로 이 글 主題文의 根據가 된다. 그러

므로 이 글 전체의 주제는 '인간은 中間的 矛盾的 存在로 그 本質은 主體性에 있다.'로 要約된다.

〈參考文獻〉

- 金奉郡, 文章技術論, 三英社, 1980.
文德守, 新文章講話, 成文閣, 1968.
이삼형, 설명적 텍스트의 내용 구조 분석 방법과 교육적 적용 연구, 서울대 박사 논문, 1994.
李恩義, 접속관계의 텍스트 언어학적 연구, 서울대박사논문, 1993.
李應百外, 國語科教育, 韓國能力開發社, 1975.
李翊燮·任洪彬, 國語文法論, 學研社, 1983.
飛口多喜雄, 『機能的 讀解指導』, 明治圖書株式會社, 1964.
倉澤榮吉, 渡部壽賀雄, 『文章論的 讀解指導』, 日本明治圖書, 1964.
Brooks, Cleanth and Warren, Robert Penn, Modern Rhetoric, Harcourt, Brace and Co, Inc, 1949.
Katheen E. Sullivan, Paragraph Practice, The Macmillan Company, 1971.